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 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사진 | 전순철 안드레아(가톨릭사진가회)

칠보성당(2지구)



① 송형석 신부(주임) ② 김용(사목회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대영광송>

**제1독서** \_ 이사 42,1-4.6-7

**화답송** \_ 시편 29(28),1ㄱ과 2.3ㄱ과 4.3ㄴ과 9ㄷ-10(◎ 11ㄴ)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

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_ 사도 10,34-38

**복음환호송**\_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_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_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주보 <숲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 비상시 행동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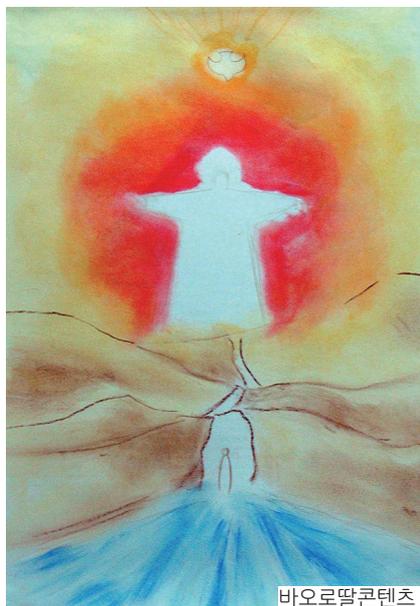


김관우 스테파노 신부  
(솔내청소년센터)

한 해가 저물어 가던 지난 연말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말은 ‘비상(非常)’이었습니다. 비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뜻밖의 긴급한 사태’입니다. 긴급한 사태를 모든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말로 듣고, 역사책에서 봤던 그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단시간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한강 작가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던 군중을 향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겨진 몸이나 옷에는 언제고 다시 먼지가 쌓이고 오물이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불로 새겨지는 징표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활활 타오르고 활동하십니다.

우리 삶에 ‘비상’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접하고 만났던 그 일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바오로달콘텐츠

이러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주셨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상 행동 요령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시는 분” 그분께 먼저 청하는 것이며,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지난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를 돕고 산자를 구하는 지금도 타고 있는 불과 같으며, 성령께서는 늘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려 하고, 그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은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헤쳐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통해 삶에 비상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느님을 찾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하라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비상’, ‘비상’에 당황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공정과 정의를 세우시고 의로운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께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시편 96,1)



제목 : 하늘 위에도  
그대의 노래가  
(글, 곡 : Fr. 정범수 베네딕토)

2024년 12월 7일 오후 7시에 우전 성당에 많은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여전히 어안이 병병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종 22주기를 맞는 故유진영 바오로 신부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려는 이들의 관심과 애정은 뜨거웠습니다. 전주교구 사제중창단 ‘데오그라시아스’는 꽤 오래전부터 바오로 신부님을 위한 추모 미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유진영 신부님은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본인이 지닌 음악적 재능과 사목적 열성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은 헛되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동료 후배 신부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그 모습과 방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음악을 통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노래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는 불모지와 같던 생활성가의 밭에 밀알 하나가 되어 과감히 몸을 던진 유진영 바오로 신부님이란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신부님을 기리며 부른 “하늘 위에도 그대의 노래가”는 다음과 같은 가사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무얼 향해 달려가는지 잊은 채  
영원의 순간을 맞을 수 있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향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는지 잊은 채 그저 땅만 보고



백재욱 스테파노 신부  
(교구 사무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통찰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부여잡고 살기 바쁩니다. 개인의 꿈이나 이상은 사치로 여겨지고, 인생의 의미나 가치 추구는 하등 쓸모없는 시간 낭비 정도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죽음을 앞당길 뿐입니다.

최근에 어느 작가가 던진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리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너’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진영 신부님은 온갖 비난과 조롱, 실패와 시련에 맞서 사랑을 노래하며 지금의 우리를 돕고 계셨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불안과 혼돈, 공포가 엄습하는 오늘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그대의 노래가  
천사와 성인과 함께 불러지기를  
주님 사랑의 노래 불러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 1. 김제지역 순례(2)

1.1 개요 : 유향검 복자의 친척, 신앙의 동료, 자녀들의 스승이었던 복자 한정흠 스타니슬라오의 출신지, 활동지, 순교지 등을 중심으로 김제본당의 역사와 관련한 장소를 순례합니다.

### 1.2 순례지 소개

① **요촌성당(김제순교성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풍길 253-16(요촌동 172-4) / [동헌 : 김제시 동헌4길 46-1(교동 7-3)]

**소개** : 김제본당은 1935년 6월 16일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첫 성당은 검산리 성당마을로 1951년 5월 검산리에서 현 자리로 이전했다. 대사원이라는 절이 있던 자리를 매입하여 1955년 성당과 사제관을 신축하였다. 1984년 신풍성당을 분리 신설하면서 본당 이름을 요촌성당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구산(龜山) 자락에 위치한 현 요촌성당 밑으로 옥터와 시장이 있었다. 1801년 7월 18일(음) 신유박해 순교자 중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한정흠 스타니슬라오 복자는 김제에서 참수형으로 순교, 순교장소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정황상 옥터나 장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 그 장소들과 가깝고 또 그 신앙의 맥을 이은 요촌성당이 순교자를 현양 하기에 제일 알맞은 장소로 여겨진다. 이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2023년 8월 27일 요촌성당을 김제순교성지로 선포하고 축복식을 거행했다.

② **신풍성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11길 23(신풍동 163-1)

[김제 첫 성당터 : 김제시 검산동 820-12 일대, 성당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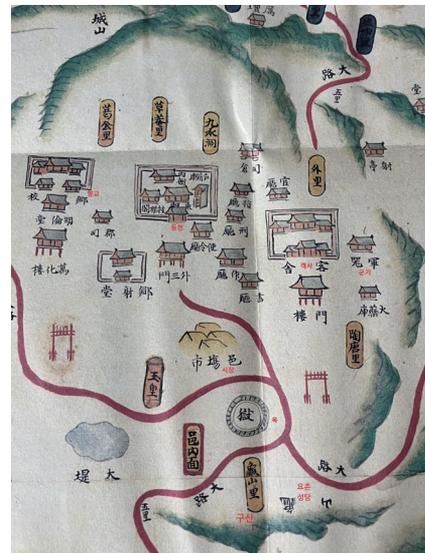
**소개** : 신풍성당의 건립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전주교구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8개 성전 건립 사업 중 네 번째였다. 1984년 12월 16일 김제 제2성당과 사제관을 지어 봉헌식을 거행했고, 1985년 1월 공식적으로 본당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신풍성당 관할 내에는 김제 첫 성당터가 포함되어 있다. 김제 첫 성당터가 있었던 검산리 동네 이름은 지금도 성당마을이다.

김제읍 지역의 공소는 1920년 검산리에서 시작되었는데, 1931년 성당과 사랑채 등을 건립하여 1935년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1951년 요촌리로 본당이 이전될 때까지 약 15년간 김제 첫 본당으로서 자리를 지켰다.

③ **백자공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26(부교리 87-8)

**소개** : 백자공소는 1885년경, 익산 함라면 장구리에 살던 유군심 요셉이 박해를 피해 들어와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 조선후기 지방지도(김제)



▲ 김제 첫 성당터(성당마을)



백자공소(1962년 건립)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동네 회장집에서 공소 예절을 하다가 1962년 현 위치에 벽돌조 건물을 건립하였고 1980년대 리모델링을 했다가 2008년에는 재건축하였다. 하지만 제대는 옛 제대를 보존하고 있다.



백자공소(2008년 건립)

④ 초남이성지 :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남계리 371-1)

소개 : 초남이성지는 한국천주교회 설립부터 핵심 역할을 했던 유허검의 신앙공동체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복자 한정흙 스타니슬라오는 유허검 복자의 신앙 동료이자 그 자녀들의 스승으로 활동했다. 복자 유중철과 유문석, 복자 유중성, 그리고 유배를 간 유섬이 등이 한정흙 복자의 교육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⑤ 그 외 공소들과 교우촌

\* 봉월공소 : 김제시 월산4길 29(월봉동 113)

\* 용지공소 :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664(예촌리 2-63)

\* 신암공소 :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77-4(용암리 18-113)



▲봉월공소



▲용지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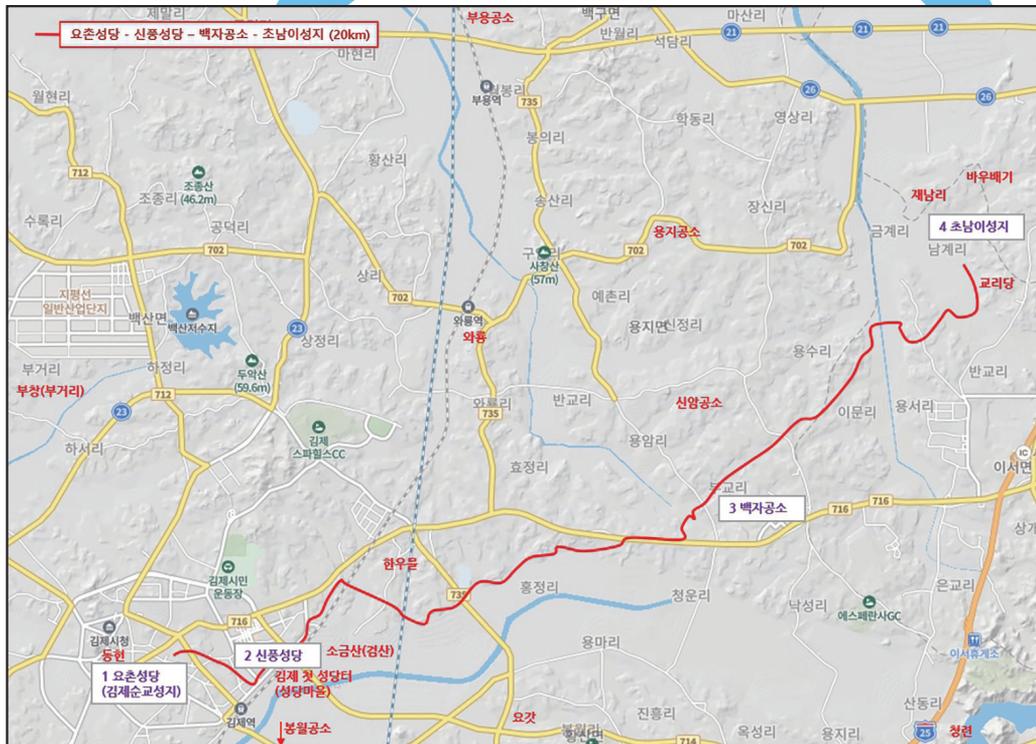
▲신암공소

\* 부창(건동리, 하건, 부창, 부거리) : 김제시 백산면 옹기가마길 10(부거리 884)

건동리 공소는 1902년에 설립되었다. 이 일대 마을에서는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던 신자들이 살았다. 부거리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옹기가마와 옹기장이 있다.

\* 한우물, 소검산 등 : 김제본당 설립의 기초를 마련한 교우촌

▼ 김제지역 순례(2)



이영춘 사도 요한 신부  
호남교회사연구소

■ 공통성구 : “나는 너를 영원한



이상훈 율리아노(신동)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로마 14,8)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서 시작되어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의 존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

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먼저 저의 부모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관계 맺음을 통해 저는 생각, 의  
지, 감정, 자유 등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양한 사건을 마련해 주시어 행복  
을 간직하는 법, 좌절에서 일어나는  
법 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  
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어 저를 성장시  
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저는 그분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아  
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로마 14,8)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첫미사 :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신동



김석규 세례자요한(수송동)



바로  
은 15년  
을 계속

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당신께  
는 여정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주교

adesto)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셔야 한다’  
는 기도는 성소에 대한 응답 안  
에서 제게 처한 어려움과 힘든  
시련을 딛고 저를 일으켜 세우

고 단단해지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그  
시금 느끼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 원동

자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처한 어떠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

걸어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있는 그대로  
뜻함을 기억하며 조그마한 한 인간을

초대하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직한 채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는 참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

첫미

# 부제 서품식

“사랑으로 사랑하였다.”(예레 31,3)

일시 : 1월 9일(목) 오후 2시 익산실내체육관  
주례 :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필립 1,21 공동번역성서)

로 사도의 담담하지만 무게 있는 고백  
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소년  
에서 이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  
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께 향하  
님께서 말씀하신 ‘투 아데스토’(Tu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모든 것임을 다  
동력 안에서 저의 성소 여정은 기적이  
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서는 저와 함께  
안에서 저의 손을 잡아 주시고 같이  
재로의 모습을 온전히 품어주신 그 따  
를 그리스도의 대리자(alter christus)로  
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  
자 합니다. 이제는 그 감사와 사랑을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받았던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시 : 1월 10일(금) 오전 10시 수송동



김민석 레오(평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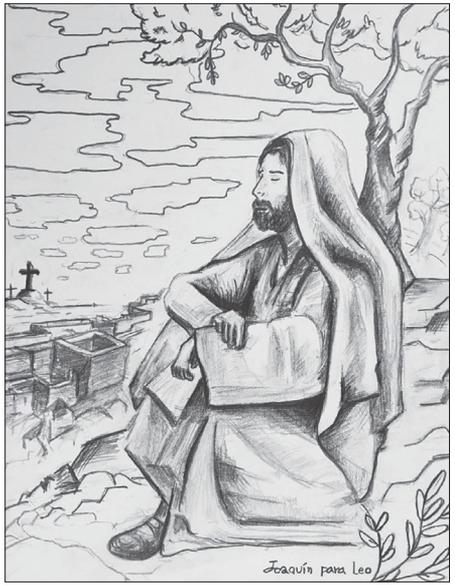
## “아버지의 뜻대로” (마르 14,36 공동번역성서)

행복하기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행복  
했고 행복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  
어가며, 행복의 비결은 ‘너’와 수많은 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알게 해 준 너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  
니다. 전주교구라는 토양에 ‘저’라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뿌

리고 땅을 갈아주며 물을 뿌려 준 모  
든 교우분들, 신부님, 수녀님, 가족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자비로운 당신 섭리로 이끄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한 서품 성구는 “아버지의  
뜻대로”(마르 14,36 공동번역성서)입니  
다. 야곱이 야벳 강에서 하느님과 씨  
름했듯이, 이 말씀과 한평생 씨름하  
고 싶어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버지  
의 뜻대로”라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서품 성구를 정했습니다. 그리하  
여 이어지는 저의 삶이 “하소서”라는 어절이 되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좋은 사제에 앞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 중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감을  
읽고 계신 모든 하느님 백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미사 : 1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평화동

## ‘너에게 난 누구니?’

서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 동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삶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단의 맏이인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마르 8,29)라고 모범적인 답변을 하지만, 얼마 못 가 스승에 대한 그의 멋진 ‘고백’은 세 번의 ‘배반’으로 바뀌어버린다. 왜일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깊은 물음과 성찰 그리고 의식 없이 마치 머릿속에 저장된 익숙한 조문을 외우듯 신앙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존재’, 곧 그분께서 약 2천 년 전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곧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요한 13,1)하신 나머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필리 2,6.7), 무엇보다 끔찍하고 치욕적인 십자가 죽음마저도 “스스로 원하신”(감사 기도 제2양식) “강생하신 하느님의 사랑”(교황 베네딕토 16세)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사도 4,12 참조)로 잘 알고 있다. 단, 예수님의 존재와 신원 그리고 사명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음은 이것이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은 정말 ‘예수’(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필리 2,9)처럼 구원, 곧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를 당겨서 건져낼 수(救援) 있는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요한 10,30 참조), 나를 하느님과의 사귄과 친교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중개자이신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정말 온 세상의 주권을 지닌 ‘주님’으로서 내 삶의 기준이요 주인이신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례식 직전에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고백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고백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 곧 지금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갑자기 삶이 건네주는 짓눌림과 무거움을 만나면 어느 순간 예수님에 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 고백하기 힘든 것이 우리네 자화상이다.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더군다나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줄 수는 있어도, 믿음을 고백하는 일만큼은 오로지 나의 몫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머릿속에 맴도는 추상적인 생각과 언어가 아닌, 조금은 부족하고 서툴러도 확신에 찬 “내 생각과 내 말”(공동번역성서 시편 19,14)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공동번역성서 요한 20,28)하고 울려 퍼져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오늘 나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초대하시며 이렇게 물으신다. ‘너에게 난 누구니?’



# 새로나온 도서를 소개합니다



## 알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종말론 이야기

명형진 신부 지음 / 성서와 함께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종말은 파멸, 낭떠러지 끝과 같은 두려운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의 자비와 복이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해 준다.



## 희망의 순례자들

김정용 신부 지음 / 바오로딸

희년의 역사와 요소를 소개하고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이 책은 본문에서 성경과 문헌을 바탕으로 희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희망의 순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서도록 초대한다. 예수님의 순례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설레고 신나는 여정이다.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을 만나는 행복한 여정이다.



## 지혜여정(예언서3, 시서와 지혜서3)

박형순 신부, 함원식 신부 지음 / 생활성서사

‘예언서3’은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끈다. ‘시서와 지혜서3’은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일상에서 성찰하고 반추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공부 교재이다.

###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피나)  
롯데백화점 옆  
(063)255-8700

### 전주향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짜임APT 맞은편

### 전주미르치과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희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테레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갑상선 전문의 · 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생태/성지순례  
한라산 포함: 2.8~10 / 2.14~16 / 2.22~24  
추자도 포함: 3.1~4 / 3.9~12 / 4.12~15  
02-773-1463 / 064-756-6009

###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아테네·메테오라·알바니아·메주고리에·보스니아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2025년 4월 27일~5월 10일(매일 미사 있습니다)  
전일관광 조전 안토니오 063-288-6666

### 남문앤몰·남문문구센터

전주시 보건소 옆  
문화누리카드/각종 지원금 가능  
문구·완구 외 5만가지 상품몰  
063)283-9100 원수관 야고보·심경이 마리아

###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근력향상 위한 놀이 / 재활 물리치료  
우울증·치매예방 뇌기능 개선 프로그램  
전주노인건강복지센터  
홍수현 테레사 010-2655-4222

### 장문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옆

### 서울영상의학과 MRI센터·심장센터

최신 AI장착 3.0T 지멘스 MRI 도입  
심장초음파CT, 특수촬영  
박인숙 아나다시아, 설명진(영상의학과)  
김원호 베드로(심장내과) 063)278-1313

• 재무평의회

1월 14일(화) 오후 2시 30분 교구청

이번 주 교구 행사

• 1월 13일(월)

- 사랑의 다리 5지구 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오전 11시 교구청)
- 가정성화미사(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1월 14일(화)

- 도청 로사리오회 미사 (오후 6시 40분 도청)

• 1월 15일(수)

- 초등부 복사단교육 1,2차(~16일) (오후 2시 유항검관)

• 1월 16일(목)

-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미사 (오후 2시 유항검관)
- 제113차 남성 꾸르실료 (~19일, 천호성지 피정의 집)

• 1월 17일(금)

- ME 198차 주말(~19일, 평화의 전당)
- 가족화합을 위한 음악회 (오후 7시 30분 평화의 전당)

• 1월 18일(토)

- 순교자현양미사 및 순교현양 아카데미 (오후 2시 교구청)

-주일학교 반주자 양성교육

(오전 10시 유항검관)

-사회사목위원회 신임분과장 모임

(오후 2시 유항검관)

교구 내 알릴

• 고창 아고바의 집(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대상 : 일상적 보행 가능 60세이상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무료)/일반(70만원)  
문의 : 063)561-2588, 010-9783-6695

• (사)양지뜸 직원모집

분야 : 조리사(시간제 근무)  
마감 : 채용시까지/홈페이지 참조  
문의 : 063)245-9143

• 청년성령피정

2월 7일(금)~9일(주일) 평화의 전당  
문의 : 010-6600-3395 박 헤레나

• 2025년 상반기 무지개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기간 : 1월 1일(수)~2월 2일(주일)  
대상 : 전북지역 도민으로 본인이 장애인 학생이거나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지원 : 최대 250만원(등록금 중 실납입액)  
문의 : 063-230-1074

•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미사

1월 1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유항검관 4층 대강당  
문의 : 010-9853-9080

**초대합니다**  
**안철문 이나시오 신부 감사미사**  
일시 : 1월 18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호성동성당

교구 밖 알릴

•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좌  
-영성과 철학상당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목요일·금요일 19:30~22:00  
-금요일은 20~30대 청년대상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 3월~11월(주일) 16-18시  
12만원 × 3회  
지도 :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010-4598-6912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대상 : 4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세상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 0507-1306-1505/카카오톡채널

• 천주교의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1월 18일(토) 오후 2시 서울 개화동  
대상 : 보건·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문의 : 010-3800-1579

천주교 전주교구청 계약직 직원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 관리국 안내실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2. 채용구분 : 1년 계약직(교구청 내규에 따라 재계약 가능)
3. 자격조건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5. 제출기한 : 2025. 1. 13.(월) 17:00까지 / 6.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mailto:jjmst@j1004.net)  
우편/인편: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230-1068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섬과 제주 여행  
3.1~3 / 3.8~10 / 3.13~16(추자도포함) / 4.1~3  
한라산 포함: 2.7~9 / 2.21~23 / 2.25~27  
02-773-1455 / 064-796-4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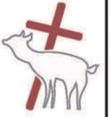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2/6 스페인,포르투갈12일, 5/19 그리스,터키12일  
4/22 성모님발현지4국12일, 6/2 동유럽5국 11일  
일본/마카오/대만, 한국성지167, 제주도순례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오직 사랑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후 각막 기증으로 눈을 선물하시고,  
통장 속 잔고 340만 원도 이주노동자를 위해 나누어 주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말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는 우리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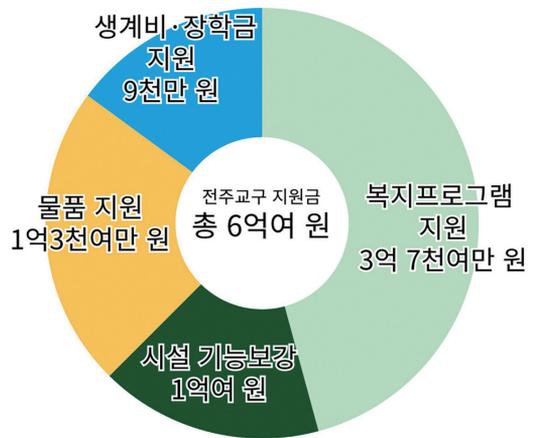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추기경님 선종 1년 후 '바보의나눔'이 설립되었습니다.  
바보의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된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곳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사랑을  
바보의나눔이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은 홀로 방치된 아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모, 편견에  
맞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인, 꿈을 이루고 싶은 해외 아동 등 인  
종,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며, 이미  
이곳 전주교구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보의나눔과 전주교구와의 인연은 2012년 전주교구 산하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개보수, 바른  
발달을 돕는 정서프로그램 지원, 발달장애인 직업 역량 강화, 다문화가  
족 지역사회 통합, 가톨릭생명운동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장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생계비·장  
학금을 전달하였고, 지난 2018년에는 수해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  
호 기금을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총 6억여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전주  
교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2012~2024년 전주교구 및  
산하시설 지원 현황



세상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보의나눔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님의 빈자리를 채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 주세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특례기부금(前 법정기부금, 기부금코드 10)  
**기부문의** 02-727-2506~08, 2510 (평일 09:00~18:00)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632223 (재)바보의나눔  
**홈페이지** [www.babo.or.kr](http://www.babo.or.kr)



기부신청 바로가기

정기기부(월 1만 원 이상)를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첫 기부 후, 기부자 선물 ‘따뜻한 손수건’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